

‘2002 홍콩 IR대회’ 성료

국내 우수 벤처기업에게 풍부한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대한 중국시장의 잠재력과 국내 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2002 홍콩 IR대회’가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와 한누리투자증권(대표 안길룡), ADM 캐피탈(홍콩 현지 캐피탈회사)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당초 9월 30일 개최하기로 한 행사는 현지 투자자들의 최대 참가일자에 맞추어 10월 3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현지 IR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국내 4개 벤처기업을 비롯한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투자기관으로 메릴린치, UBS월버그 등 총 30여 업체가 참여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감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협회가 준비한 영문 산업지도(Industry Map)는 현지 투자자의 큰 호응을 얻으며 국내 벤처기업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 도착 첫날, ADM 캐피탈과 한누리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다음날 있을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리허설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기업별 IR 발표와 개별 미팅을 펼친 행사 이튿날에는 ‘하우리’, ‘이앤이시스템’ 등 6개 업체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프리젠테이션을 가졌고, 10여개 국내 업체와 투자기관간의 개별 미팅시간을 가졌다. IR프리젠테이션은 참여 업체들의 자유로운 영어 활용에 따른 투자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공식오찬에까지 이어져 활발한 의견교환과 합의가 이뤄졌다.

대부분의 참석한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자료제공과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이 무척 인상적이었다면서 빠른 이해와 접



▲ 행사참가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사무국은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적인 IR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선정작업과 전문적인 IR자료 제작, 참여기업들의 참가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현지 투자자들 및 참여 업체들에게 한국기업의 투자협상에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협회 오형근 전무는 “11개 우리 벤처기업의 IR대회 참가를 통해 홍콩의 투자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한국 벤처기업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국내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앞으로 한민족 글로벌 벤처네트워크(INKE)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사에 더 많은 국내 벤처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10월 말에 개최되는 ‘VENTURE KOREA 2002’에서 다시 한번 국내 벤처기업의 결속력을 다지며, INKE의 지원아래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